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필요

바이호로 4차 혁명시대다. 오늘날 이후는, 아이오티(IOT), 시피에스(CPS),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조지능 혁명시대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용어를 정의해 보면, 시피에스(CPS)는 모든 사물이 아이오티(IOT)기반으로 연결되고 컴퓨팅과 물리세계가 융합되어 자동화, 지능화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은 제어대상(제조설비, 차...

동차 등)에 센서를 부착하여 아이오티(IOT),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기기를 이용해 센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의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한 후 현실세계에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이다...

시피에스(CPS)는 기본적으로 아이오티(IOT)인프라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데이터가 기록되어 되어 확장·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아이오티(IOT)의 예를 들면,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가정할 때, 이 뉴스를 접한 스마트폰이 스스로 알람시간을 평소보다 더 일찍 울려서 주인을 깨운다...

전기기기가 스스로 꺼지고 가스로 안전하게 차단된다. 이런 시스템을 아이오티(IOT)라 한다.

뛰니뛰니해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마셜 매클루언은 "미래의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유목민이 될 것이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지만 어디에도 집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즉 4차 혁명시대는 잡노마드(job nomad)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일명 '직업 유목민'의 시대라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 개인용 피시, 자동차 등이다. 사실 오늘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다.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면 시간과 장소, 강의내용 등을 메모한 후 지정된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면 된다. 구태여 사무실이 따로 필요 없다는 뜻이다.

잡노마드 시대에는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이동한다. 이전에는 없던 가치도 창출된다. 인종, 빈부, 미추에 의한 차별도 없다. 지금까지 절대적 주류를 형성해오던 평생직장제도도 무너진다. 자유를 위해 오히려 황금세장을 거부한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패러다임(Paradigm)변화에의 적응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주류에 합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앞으로의 세계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산업이 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기간도 점점 더 짧아질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고의 틀을 깨야 한다. 화석화된 사고로는 현재 이후의 사회를 적절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제 4차 혁명시대다. 5차, 6차 혁명시대까지의 생각도 말자. 지금도 박차치자.

社說

바른 음주습관 필요하다

우리나라 20~30대는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여전히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정이 크다.

음주자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음주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고 있었고, 특히 여성 음주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보다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천명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섭취 형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음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91.4%로 지난해(90.6%)와 비슷했다. 응답자들은 맥주(94.0%), 소주(79.8%), 탁주(38.6%)를 주로 마셨다.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50ml) 6.1잔, 맥주(200ml) 4.8잔, 탁주(200ml) 2.9잔, 과실주(100ml)

3.1잔, 위스키(30ml) 4.5잔이었다.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57.3%로 지난해(58.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연령대는 30대(66.3%)와 20대(63.5%)였고, 그다음으로 40대(59.4%), 50대(52.6%), 60대(48.5%) 순이었다. 다른 연령대는 작년보다 고위험 음주율이 떨어졌지만 30대는 3.9%포인트 증가했다.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로는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져서'(23.1%), '기존 주류보다 맛있어서'(21.9%), '회식·행사에서 함께 마시기 때문에'(19.3%),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15.3%), '빨리 취해서'(7.7%) 등이 꼽혔다.

음주자들은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저위험 음주량 기준으로 마셔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아파트 화재, 어디로 대피하나요?

몇 해 전 부산의 어느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대피공간인 경량 칸막이 존재를 몰라 참사를 당한 일이 있어 뉴스를 보던 국민이 무척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다.

아파트는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복도형 아파트 등에 비상통로 역할을 하는 경계벽이 설치됐다.

또 2005년 12월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경량 칸막이는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집으로 비상탈출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서 내화...

능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됐고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 어느 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그렇지만 현실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입구에는 불박이장이나 세탁기 설치 등 각종 짐을 쌓아놓는 장소로 변했고 대피공간 역시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당국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는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은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관리주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피난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자발적으로 제거토록 해 만일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할 공간과 통로를 찾지 못해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없어야 하겠다.

박태진 /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겨울철 정전기 예방법

겨울철 차 손잡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댈 때, 옷을 입었다가 벗을 때, 모르는 사람과 손끝이 스칠 때, 의도치 않게 정전기가 오르면 아프지는 않지만 웬지 모르게 감촉 불쾌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겨울철 정전기, 일어나는 원인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전기는 '마찰'이 원인입니다.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쌓이게 되면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는 건조한 계절일수록 심하고, 나일론이나 아크릴 섬유류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린이보다는 노인이,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이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정전기 예방법은 첫째, 달라붙는 차마에는 클립을 끼우자. 얇은 원피스나 차마에 정전기가 일어나면 몸에 밀착되어서 당...

황스러워지기 마련인데요, 클립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옷 안감에 끼우면 전자가 클립으로 이동하게 되어 정전기가 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실내 습도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자.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통해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보습크림을 자주 발라주세요.

손을 이용해서 물건을 잡고 접촉하기 때문에 손가락에서 정전기를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건조할 때문이기도 하니, 반드시 겨울철엔 자주 보습크림을 발라서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전기를 간단한 예방법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만일의 사고도 줄이고, 불편함도 없앨 수 있습니다.

유현철 /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竝 나란히 병 竝 皆 佳 妙
皆 다 개
佳 아름다울 가
妙 묘할 묘

▷ 뜻 : 모두가 아름다우며 묘한 재주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동프라자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